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hree-generation Family Experiences and
Coping Behaviors of Korean Children on Their Behavior Problems*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전연진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정문자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

Researcher : Chun Yeon Jin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

Professor : Chung, Moon Ja

목 차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Korean parents' family-of-origin experiences, marital conflict, open or dysfunctional communication with their children, children's coping behaviors on their behavior problems as a function of a child's sex. Theoretical models for both sexes were constructed based on the results.

Two hundred and nine boys and one hundred and ninety six girls of 4th and 5th grades from two elementary schools filled out the questionnaires to assess their communication with the parents, their problem-focused coping behaviors, and their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Four hundred five parents of these children answered the questionnaires to assess differentiation for the family-of-origin and

Corresponding Author: Yeon Jin Chu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Tel: 82-11-9257-0209 E-mail: codejinny@hanmail.net

* 본 논문은 2002년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the marital conflic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Boys' path pattern showed that the fathers' differentiation from the family-of-origin effected their so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hrough parent-child dysfunctional communication. Girls' path exhibited two different patterns. One is that the mothers' differentiation from the family-of-origin effected their daughter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hrough parent-child dysfunctional communication. Another one is that the mothers' differentiation from the family-of-origin influenced children's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hrough daughters' problem-focused coping behaviors as well as parent-child dysfunctional communication.

주제어(Key Words):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parents' differentiation from the family-of-origin),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아동의 행동문제(children's behavior problem),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I. 서론

입상 현장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아동의 행동문제가 일반 아동에서도 나타나 적어도 한반의 10% 정도가 행동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 1991).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 대부분이 학급 아동의 정신건강문제를 심각하게 여긴다는 보도(조선일보, 1996. 4. 4일자)는 아동 행동문제의 증가와 그 심각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행동문제는 이미 아동기부터 시작되어 지속된 것이므로(Morita, Suzuki, & Kamoshita, 1990) 청소년기의 행동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동문제가 만성화되기 전인 아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문제의 경향과 원인, 예방책, 중재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행동문제 중재에 있어 가족을 활용한 중재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Home, 1993), 부모의 부정적인 영향, 예를 들면 이혼이 아동의 부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elly, 2000). 그러나 이혼에 대한 연구가 누적되면서 실제로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혼 자체 보다 이혼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부모간의 갈등이며(Buehler, Krishnakumar, Stone, Anthony, Pemberton, Gerard, & Barber, 1998; Jekielek, 1998), 이는 아동의 공격성, 과활동성, 비행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와 철회, 우울,

불안 등의 내면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영옥, 1997; 이민식, 1999; Fincham, Grych, & Osborne, 1994; Harrist & Ainslie, 1998).

이처럼 부부갈등이 아동의 행동문제를 일으킨다는 결과들이 일관되게 보고되면서 이 두 변인을 연결하는 기제(mechanism)를 찾는 데 그 관심이 모아졌다. 그 결과 아동이 부부갈등에 노출되지만 해도 유해한 영향을 받는다는 부부갈등의 직접 효과를 나타내는 경로와 부모가 부부갈등으로 발생한 부모간의 분노를 부모-자녀 관계에 전이함으로써 부모가 바람직한 양육행동이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되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부부갈등의 간접 효과를 나타내는 경로가 밝혀졌다(Cummings, Davies, & Campbell, 2001; Kitzmann, 2000).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결혼갈등이 높은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자녀에게 덜 온정적, 공감적이며, 거부적, 비일관적이고 엄한 훈육방식을 보이며, 죄책감과 불안을 유도하는 훈육기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Kelly, 2000). 또한 갈등적인 부부관계를 보이는 부모는 자녀에게 위협, 비난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비구조화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rishnakumar & Buehler, 2000). 그리고 부모의 처벌적이거나 냉담한 양육태도는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한편(Rubin, Stewart, & Chen, 1995), 부모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적게 할수록 아동의 우울 정도는 감소되고(정태

회, 1995),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은 반사회적 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애경, 2001). 따라서 부부갈등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부부갈등의 직접 경로와 간접 경로를 모두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부부갈등의 간접 효과를 살펴볼 때 부모-자녀 체계의 지표변인인 양육태도와 의사소통은 그 정의가 매우 유사하며, 측정하는 지표 변인에 따른 연구 결과에 차이가 없다(Erel & Burman, 1995). 그러나 학령기 중 고학년에 속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자녀관계는 의사소통을 통해 표출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을 고려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측정하는 지표 변인으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부부갈등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내면화, 외현화와 같은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라 다르며(이민식, 1999; Harold, Osborne, & Conger, 1997; Harist & Ainslie, 1998; Osborne & Fincham, 1996), 아동의 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므로(Kim, Hetherington, & Reiss, 1999; Osbore & Fincham, 1996)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부부갈등의 직·간접적 영향을 검증할 때 그 영향력이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과 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함께 탐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부모의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이외에 아동의 행동문제를 일으키는 보다 근원적인 가족과정 변인으로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재 핵가족 내에서 부모가 보이는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간 관계 유형은 부모자신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보는 다세대에 초점을 둔 가족체계론적 관점에 근거한다(Boszomenyi-Nagy & Ulrich, 1981; Bowen, 1978; Minuchin, 1974). 원가족 분화 경험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원가족에서 높은 수준의 분화 경험을 한 부부는 부부간에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생활에서 디스트레스와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Cubberly, 1988; Bartle-Haring & Sabatelli, 1998;

Lim & Jennings, 1996). 그리고 원가족에서 낮은 수준의 분화 경험을 할수록 부모는 갈등적 부모-자녀 관계를 맺고(유은희·진춘애, 1995), 아동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Davies & Cummings, 1994; Fauber et al., 1990), 허용 또는 과보호하고(정문자, 1996)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부모 자신이 원가족에서 경험한 부모-자녀관계 유형을 자신이 형성한 핵가족 내에 세대간 전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보다 근원적인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에 의해 영향받고 있다. 이는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원가족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방식이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에 세대간 전수되어 아동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중요한 가족과정 변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행동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동은 이상과 같은 가족과정 변인의 영향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지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하려는 보다 능동적인 존재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가족과정 변인과 아동의 행동문제를 살펴보는 연구자들은 그 매개변인으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Cummings & El-Sheikh, 1991). 관련 연구들의 보고에 의하면 아동이 문제 중심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할수록 아동의 부적응은 감소하는 반면, 정서 중심 대처행동을 하면 부적응이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정 변인의 영향을 완충하는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행동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원가족 관계에서부터 현재 가족관계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가족치료 이론과 임상현장에서만 제기되어 왔을 뿐 실제 이에 대해 검증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학문 분야에 따라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인들이 달랐기 때문이

다. 예컨대 가족분야에서는 원가족 경험과 부부갈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반면, 아동의 발달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부부갈등, 부모의 양육행동과 의사소통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로 연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족과정 변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세대간 전수되어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형화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족체계론적 관점과 Bowen의 가족치료이론을 토대로 가족과정 변인인 원가족 분화 경험, 부부갈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아동특성변인인 아동의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는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 변인들간의 경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로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Kim, Hetherington, & Reiss, 1999; Osborne & Fincham, 1996)에 따라 아동의 성별로 각 경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갖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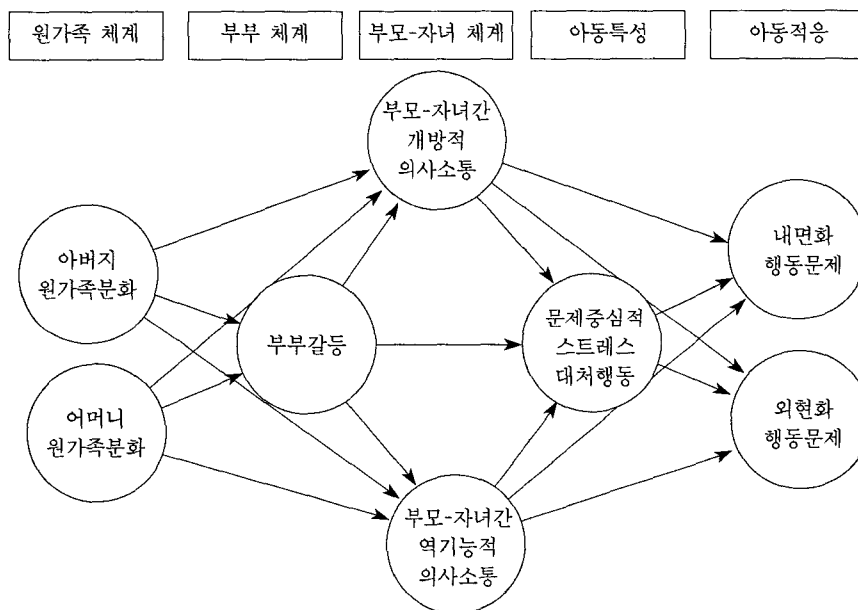
1.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 부부갈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안양시에 위치한 2개 초등학교의 4학년 188명(남아 102명, 여아 86명)과 5학년 217명(남아 107명, 여아 110명)씩 총 405명과 그들의 부모 405쌍이다. 이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안양시의 초등학교 중 2곳을 임의 표집한 후 4, 5학년에서 각 7학급씩 총 14학급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급의



<그림 1>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이론적 모형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용 질문지를 해당 교실에서 실시하였고 아버지용, 어머니용 질문지는 아동이 집으로 가져가 부모가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아동의 부모가 모두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연구 특성에 따라 아동과 부모의 자료가 모두 수집된 가족만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대상 아동의 성별 구성은 남아 51.6%, 여아 48.4%였으며, 학년별 구성은 4학년이 46.4%(평균 연령 10세), 5학년이 53.6%(평균 연령 11.3세)였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남아와 여아의 부모 모두 주로 30대와 40대였다. 부모의 학력에서 아버지는 주로 고졸(45.4%)과 대졸(41.0%)이 많았고, 어머니

는 고졸(64.4%)이 가장 많았다. 부모의 직업별 특성을 보면, 아버지의 직업은 판매 및 서비스직(34.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노무 및 생산·기술직(21.9%)이었다. 어머니도 절반 정도가 주부(54.8%)였으며, 취업한 경우에는 판매 및 서비스직(14.6%)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계의 월 수입은 100만원대(42.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0만원대(31.1%)였다. 월평균 수입¹⁾은 본 연구 대상 가정의 약 73.8%가 100만원에서 299만원 사이에 속하였다.

1) 2001년 3/4분기 도시 근로자 월평균 근로 소득은 229만원, 경상소득이 253만원이었다(통계청, 2002).

<표 1> 연구대상 부모의 인구학적 배경

변 인		남 아		여 아	
		아버지 (n=209) 빈도 (%)	어머니 (n=209) 빈도 (%)	아버지 (n=196) 빈도 (%)	어머니 (n=196) 빈도 (%)
연령	20대	0 (0.0)	0 (0.0)	1 (0.5)	0 (0.0)
	30대	62 (29.7)	138 (66.0)	62 (31.6)	150 (76.5)
	40대	141 (67.5)	68 (32.5)	125 (63.8)	41 (20.9)
	50대	3 (1.5)	1 (0.5)	4 (2.0)	2 (1.0)
	60대	0 (0.0)	0 (0.0)	1 (0.5)	0 (0.0)
	무응답	3 (1.5)	2 (1.0)	3 (1.5)	3 (1.5)
학력	국졸	5 (2.4)	5 (2.4)	5 (2.6)	4 (2.0)
	중졸	9 (4.3)	18 (8.6)	15 (7.7)	19 (9.7)
	고졸	94 (45.0)	130 (62.2)	90 (45.9)	131 (66.8)
	대졸	89 (42.6)	49 (23.4)	77 (39.3)	38 (19.4)
	대학원이상	9 (4.3)	2 (1.0)	6 (3.1)	1 (0.5)
	무응답	3 (1.4)	5 (2.4)	3 (1.5)	3 (1.5)
직업	노무 및 기술직	46 (22.0)	20 (9.6)	43 (22.0)	23 (11.7)
	판매 및 서비스	73 (35.9)	36 (17.2)	63 (32.2)	23 (11.7)
	사무직	19 (9.1)	6 (2.9)	20 (10.2)	5 (2.7)
	관리직	13 (6.2)	0 (0.0)	12 (6.1)	0 (0.0)
	전문직	18 (8.7)	8 (3.8)	14 (7.1)	4 (2.0)
	무 직	1 (0.5)	107 (51.2)	4 (2.0)	115 (58.7)
	기 타	30 (14.4)	11 (5.3)	34 (17.3)	14 (7.1)
	무응답	7 (3.3)	21 (10.0)	6 (3.1)	12 (6.1)
월가계 수입	99만원 이하	12 (5.8)		16 (8.1)	
	100 - 199만원	88 (42.1)		85 (43.3)	
	200 - 299만원	68 (32.5)		58 (29.6)	
	300만원 이상	36 (17.2)		31 (15.8)	
	무응답	5 (2.4)		6 (3.1)	

2. 측정 도구

1)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선행 연구와 기존의 국내외 척도들을 토대로 개발한 원가족 분화 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참고한 척도는 Bray, Williamson, Malone(1984)의 Personal Authority in the Family System Questionnaire (PAFS-Q), 전춘애(1994)의 자아분화 척도, Chun(1996)의 부모-자녀 분화 척도(Parent-Child Differentiation Scale: PCDS) 등이다.

개발된 원가족 분화 경험의 측정도구는 하위영역별로 '정서적 단절' 12문항, '삼각화' 7문항, '정서적 분리' 7문항 등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의 문항들은 원가족에서의 경험과 문항 내용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평정 척도로 되어 있다. 척도의 점수 산출 방법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와의 분화 정도에 대해 각각 응답한 후 이를 합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단절과 삼각화는 원가족과 분화 수준이 낮음을, 정서적 분리는 원가족과 분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 부부갈등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Jeon(1994)이 개발하고 번안한 결혼갈등 측정도구(Marital Conflict Inventory)의 26개 문항 중 본 연구에서는 '직·간접적 갈등 표현' 항목에 관한 9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는 부부갈등의 여러 측면을 함께 고려할 경우 적대적 부부갈등과 아동의 적응 및 양육행동의 관계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Krishnakumar와 Buehler(2000)의 견해에 따라 적대적 부부갈등이 명료하게 표현된 직·간접적 갈등 표현 영역을 사용한 것이다. 이 도구는 일상에서 부부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표현 및 해결 정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예비조사에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 결과 나타난 하위척도와 문항은 '직·간접적 갈등 표현' 9개 문항, '합리적 해결' 8개 문항, 그리고 '갈등 회피' 9개 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지 6점 평정 척도로 되어 있으며, 문항의 점수 산출 방법은 응답자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배우자에게 한 행동과 배우자가 자신에게 한 행동을 각각 평정한 후 이 두가지 평정치치를 합산하여 아버지가 보고한 부부갈등 점수와 어머니가 보고한 부부갈등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부부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민혜영(1990)이 번안한 Barnes와 Olson(1982)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측정도구(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open family communication)과 역기능적 의사소통(problems in family communication)의 두가지 하위 영역으로 각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평정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척도의 가능한 총점 범위는 각 하위 영역별로 10점에서부터 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 의사소통 영역은 부모와 자녀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영역은 부모와 자녀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4) 아동의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아동의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민혜영과 유안진(1998)에 기초하여 박진아와 정문자(2001)가 수정·보완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아동이 일상적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적극적, 공격적, 사회지지 추구적,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의 총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각 문항 채점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4점)'의 4점 평정 척도로 평가한다. 각 하위영역별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5점에서 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와 Edelbrock(1983),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와 하은혜(1997)가 우리말로 번역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의 자기보고형(Korean Youth Self-Report: K-YSR)을 사용하였다. 본래 이 도구는 총 1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6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내면화 행동문제의 하위 영역은 위

축 7문항, 신체증상 9문항, 우울·불안 16문항이며 이중 위축과 우울·불안 영역에 공통된 한 문항이 있어 내면화 행동문제는 총 31문항이다. 또한 외현화 행동문제는 비행 11문항, 공격성 19문항의 총 30문항으로 되어 있다.

K-YSR의 각 문항은 아동 자신이 지난 6개월 동안에 보인 행동문제들에 대해 '전혀 아니다(0점)', '가끔 그렇다(1점)', '자주 그렇다(2점)'의 3점 평정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각 하위영역별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위축이 0점에서 14점, 신체적 증상 0점에서 18점, 우울·불안은 0점에서 32점이며, 비행 0점에서 22점, 공격성이 0점에서 3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별 도구의 문항수, 가능한 점수범위와 내적합치도 계수는 다음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변인별 도구의 문항수, 가능한 점수범위와 내적합치도 계수

보고자	이론변인	측정변인	문항수	가능한 점수범위	내적합치도 계수
부 모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	정서적 단절	24	24-120	.93
		삼각화	14	14-70	.82
		정서적 분리	14	14-70	.87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	정서적 단절	24	24-120	.93
		삼각화	14	14-70	.81
		정서적 분리	14	14-70	.81
부부갈등	아버지 지각	18	0-90	.88	
	어머니 지각	18	0-90	.87	
아 동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	아버지-아동간	10	10-50	.73
		어머니-아동간	10	10-50	.71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아버지-아동간	10	10-50	.73
		어머니-아동간	10	10-50	.71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적극적 대처	5	5-20	.79
		사회지지 추구	5	5-20	.63
	내면화 행동문제	위축	7	0-14	.72
		신체증상	9	0-18	.73
		우울·불안	16	0-32	.80
	외현화 행동문제	비행	11	0-22	.56
공격성		19	0-38	.81	

3. 연구 절차와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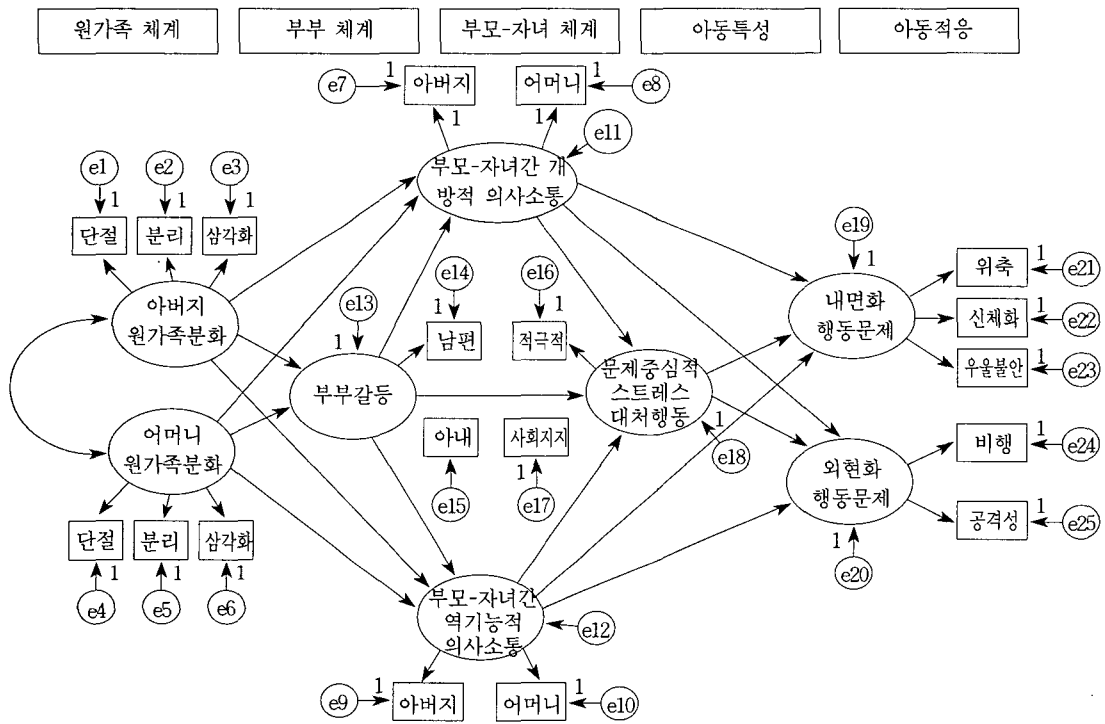
본조사는 2001년 7월 2일에서 16일까지 2주에 걸쳐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2개 초등학교의 4학년과 5학년 각 7학급씩 총 14학급의 아동 465명과 그들의 부모 465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아동에 대한 조사는 이틀에 걸쳐 실시되었다.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질문지는 본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 5명이 검사 첫날 대상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둘째날에는 아동이 자신의 행동문제에 대해 보고하는 질문지를 각 학급별로 담임교사의 지도 하에 실

시하였다.

부모용 질문지는 첫날 아동용 질문지를 실시한 후 아동들에게 배포하였으며, 1주일 후 수거하였다. 배부된 총 600부의 부모용 질문지 중 445부가 회수되어 74%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중 편부모 가정과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질문지를 제외한 결과 최종 자료 분석에는 아동과 부모용 질문지 405쌍이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첫째, 아동의 성에 따라 기술적 통제치를 산출하고 각 측정변인들의 점수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가설의 검증을 통해 관련 변인들간의 관련 모형을 검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그림 2>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측정모형

- e1~e25 : 오차항
- 단절 : 정서적 단절
- 분리 : 정서적 분리
- 남편 :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
- 아내 :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
- 아버지 :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
- 어머니 :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 적극적 :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 사회지지 : 사회지지 추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SEM)을 사용하였고, 이는 AMOS 40프로그램을 통해 처리하였다. 모형 검증을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들의 계산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적합도 지수(goodness of fit Index)는 χ^2 , 표준카이제곱치(χ^2 를 자유도로 나눈 비), NNFI(Non-Normed Fit Index, 또는 Tucker-Lewis Index; TLI),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이론적 모형은 앞에서 제

시한 <그림 1>의 모형이며, 이를 알아보기 위한 측정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III. 연구결과

1. 아동의 성에 따른 측정 변인의 차이

본 연구에서 측정된 측정변인의 점수가 아동의 성

<표 3> 아동의 성에 따른 측정 변인의 점수 범위와 평균,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N=405)

보고자	성 별 통계치 변인	가능 점수 범위	남아(n=209)		여아(n=196)		t
			점수 범위	평균 (표준편차)	점수 범위	평균 (표준편차)	
아버지 (n=405)	원가족 경험	24-120	24-102	45.38(15.99)	24-104	45.34(17.63)	.03
	정서적 단절	14- 70	7- 47	23.75(8.76)	14- 56	24.53(9.55)	-.85
	삼각화	14- 70	16- 70	46.21(9.88)	18- 69	46.10(10.09)	.11
	분리	0- 90	0- 58	14.60(10.54)	0- 65	13.27(10.13)	1.29
어머니 (n=405)	원가족 경험	24-120	23-107	46.99(18.27)	24-106	46.34(18.86)	.35
	정서적 단절	14- 70	13- 48	24.24(8.43)	14- 56	24.14(8.08)	.12
	삼각화	14- 70	15- 69	44.45(10.27)	14- 69	44.56(10.63)	-.10
	분리	0- 90	0- 53	14.32(9.54)	0- 51	13.87(10.10)	.47
아 동 (n=405)	개방적 의사소통						
	아버지-아동간	10- 50	14- 50	34.39(7.86)	10- 50	34.93(8.52)	-.67
	어머니-아동간	10- 50	12- 50	38.86(7.74)	10- 50	40.04(8.26)	-1.48
	역기능적 의사소통						
	아버지-아동간	10- 50	10- 40	23.56(6.69)	10- 41	22.02(6.46)	2.35**
	어머니-아동간	10- 50	10- 41	21.95(6.20)	10- 45	20.78(6.45)	1.87
	스트레스 대처행동						
	적극적 대처	5- 20	5- 20	13.37(3.35)	5- 20	13.43(3.44)	.18
	사회지지 추구	5- 20	5- 19	10.06(3.03)	5- 19	11.09(2.83)	-3.54***
	내면화 행동문제						
총 점	0- 62	1- 53	14.81(9.09)	0- 47	13.93(8.96)	.95	
위 축	0- 14	0- 12	3.40(2.66)	0- 14	3.20(2.68)	.77	
신체증상	0- 18	0- 17	4.20(3.20)	0- 13	3.88(2.86)	1.07	
우울·불안	0- 32	0- 26	7.59(5.27)	0- 27	7.29(5.53)	.53	
외현화 행동문제							
총 점	0- 60	2- 50	14.11(6.56)	0- 34	11.98(6.23)	3.35***	
비 행	0- 22	0- 17	3.11(2.11)	0- 10	2.29(1.66)	4.38***	
공격성	0- 38	1- 33	11.00(5.13)	0- 30	9.69(5.20)	2.54**	

p<.01, * p<.001

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표 3>과 같이 각 변수들의 점수 범위와 평균, 표준편차를 남아집단과 여아집단별로 산출하고 두 집단간 평균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그리고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 점수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는 딸(M=22.02, SD=6.46)보다 아들(M=23.56, SD=6.69)과 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였다($t=2.35, p<.01$). 사회지지 추구적 행동은 여아가 더 많이 한 반면($t=-3.54, p<.001$) 비행($t=4.25, p<.001$), 공격성($t=2.28, p<.05$) 등 외현화된 행동문제($t=3.15, p<.01$)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측정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아집단과 여아집단을 나누어 변인간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남아집단을 대상으로 각 측정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측정변인들간의 유의한 상관은 -.33~.75의 범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변인들간의 상관계수가 높지 않았으나 부부갈등의 측정변인인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r=.48$), 그리고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측정변인들간의 상관계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r=-.33\sim.66$). 즉 아버지가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어머니도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였다. 또한 부모가 아들과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할수록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적게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여아집단에서도 유사하였으며, 측정변인들간의 유의한 상관은 -.46~.75의 범위를 보였다.

2.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 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이 주어진 경험자료와 잘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계수 산출법으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측정변인인 아버지-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의 오차변량 $e7$ 과 아버지-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오차변량 $e9$, 그리고 어머니-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 오차변량 $e8$ 과 어머니-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오차변량 $e10$ 간의 공분산에 대한 수정지수값(modification indices)이 보수적인 수준으로 권하는 10(Fassinger, 1987: 재인용)을 훨씬 초과하였다. 이런 경우 이론에 근거하여 모형의 수정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제시된 각 오차변량간에는 충분히 공분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e7$ 과 $e9$, $e8$ 과 $e10$ 간에 양방향 화살표로 표시되는 공분산 경로를 연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이론적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표 4>에 제시하였으며, 수정모형은 <그림 3>과 같다.

이상의 수정 모형을 토대로 아동의 성에 따라 각 이론변인들간의 경로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집단별로 모형을 각각 검증하였다. 남아집단과 여아집단별 모형의 적합도 지수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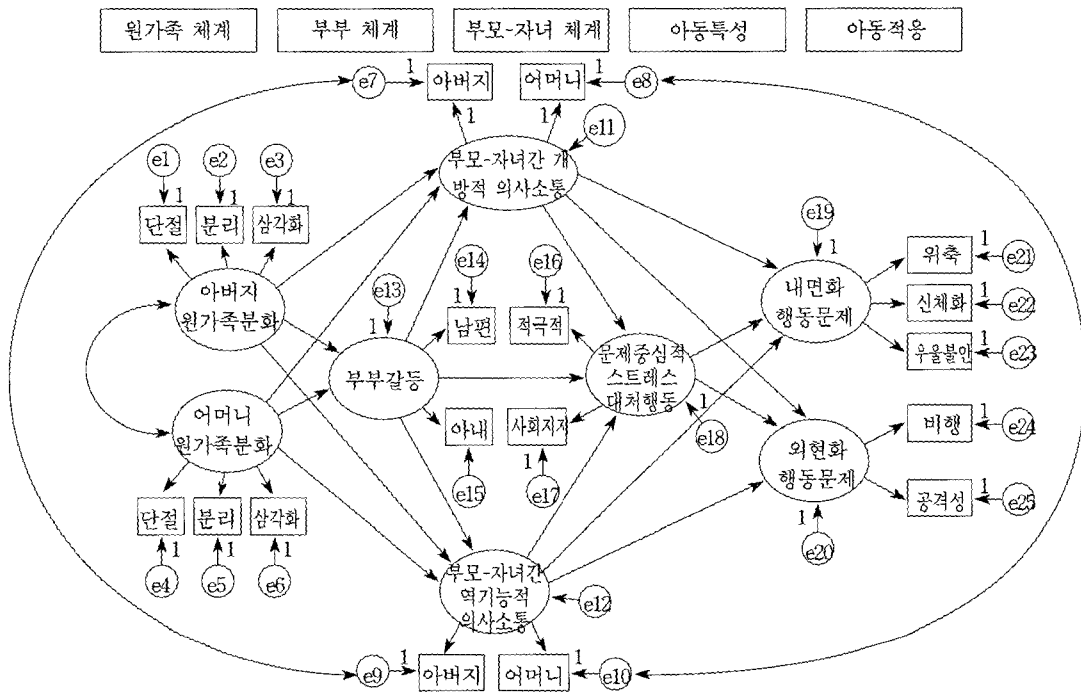
<표 5>에 제시되었듯이 남녀 아동집단 모두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χ^2 값과 모델의 자유도간의 비인 표준카이제곱치가 각각 1.92, 1.80으로 비교적 잘 맞는 적합도를 보였다. 이외에 다른 적합도 지수들도 TLI, CFI 등이 .90을 훨

<표 4>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	df	p	χ^2/df	TLI	CFI	RMSEA
가설 모형	340.76	133	0.00	2.56	0.98	0.99	0.06(0.05-0.70)

<표 5> 남녀 아동 집단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	df	p	χ^2/df	TLI	CFI	RMSEA
가설	남아	255.11	133	0.00	1.92	0.98	0.07(0.05-0.08)
모형	여아	239.64	133	0.00	1.80	0.98	0.06(0.05-0.08)



〈그림 3〉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수정모형

↔ : 공분산 경로
 단절 : 정서적 단절
 분리 : 정서적 분리
 남편 :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내 :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
 e1~e25 : 오차항
 아버지 :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
 어머니 :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적극적 :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사회지지 : 사회지지 추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원 넘는 수치를 보였고, RMSEA도 각각 .07, .06으로 나타나 남아집단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이론적 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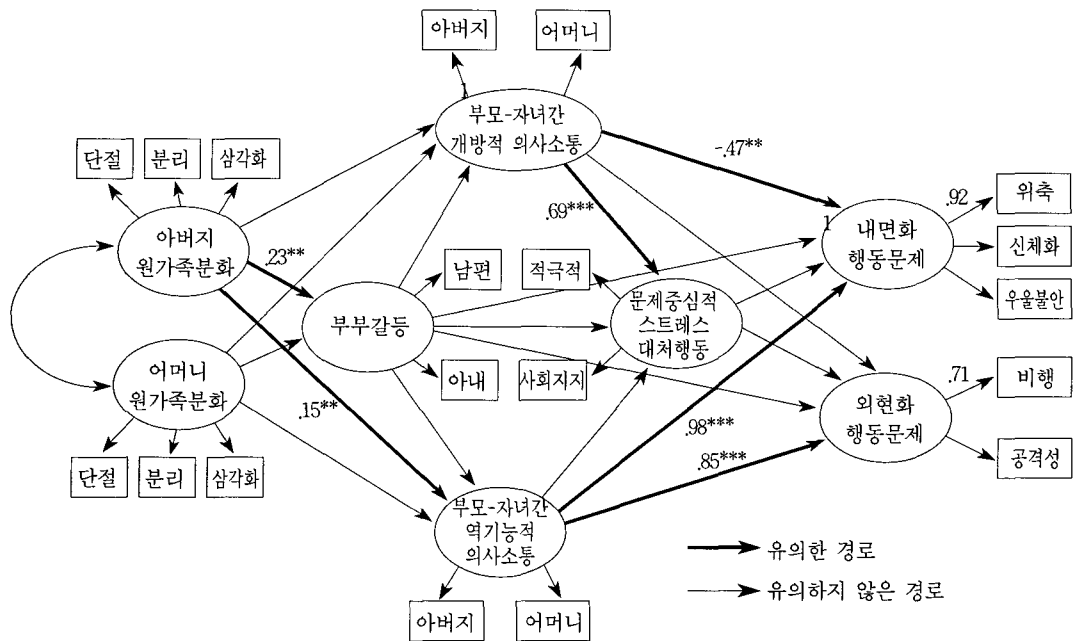
1) 남아집단에서 이론적 모형의 변인간 경로 분석

남아집단에서 구조방정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이론적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는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원가족 경험으로부터 아동의 행동문제에 이르는 직·간접적 경로를 살펴

보면,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는 아들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아들은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였다. 이러한 경로는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를 92%, 외현화 행동문제의 71%를 설명하였다.

한편 변인간 부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난 경로들을 살펴보면, 먼저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부갈등에 정적인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부



〈그림 4〉 남아집단의 이론적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단절 : 정서적 단절
 분리 : 정서적 분리
 남편 :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내 :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
 아버지 :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
 어머니 :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적극적 :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사회지지 : 사회지지 추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 $p < .05$, ** $p < .01$, *** $p < .001$

모든 부부갈등이 높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에는 정적인 직접 효과를 보인 반면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에는 부적인 직접 효과를 보였다. 즉 부모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할수록 아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중심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하며, 내면화 행동문제는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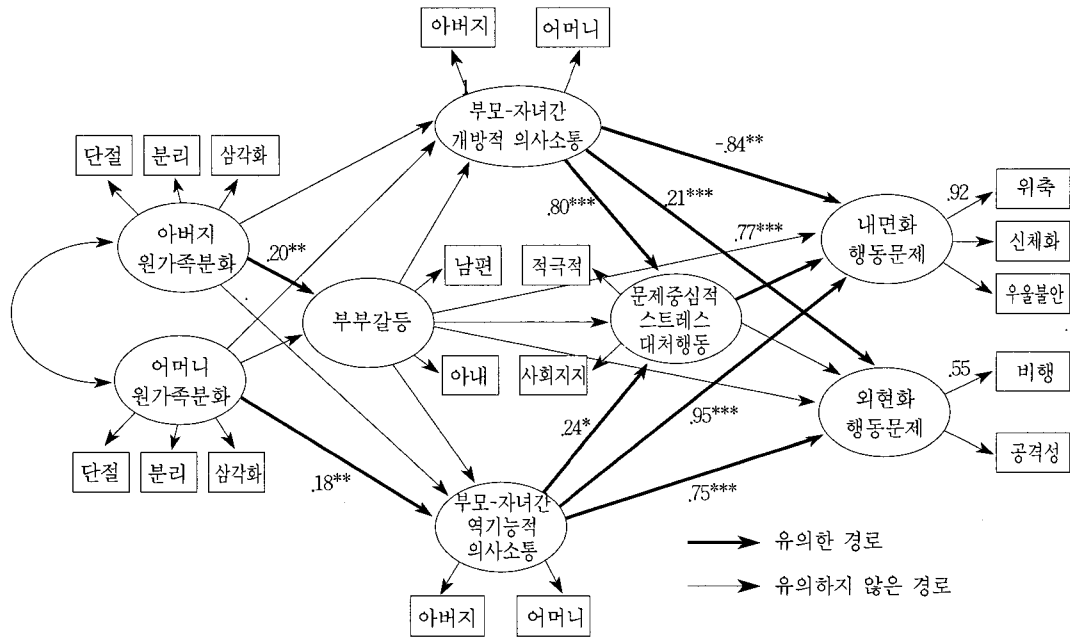
2) 여아집단에서 이론적 모형의 변인간 경로 분석

다음으로 여아집단에서 이론변인들간의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이론적 모형의 경로와 표준

화 계수는 〈그림 5〉에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아집단에서 나타난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으로부터 아동의 행동문제에 이르는 직·간접적 경로는 두가지로 요약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는 딸에게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며, 이렇게 부모가 자녀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딸은 위축, 우울과 불안, 그리고 신체화 증상과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와 비행 및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인다.



<그림 5> 여아집단의 이론적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단단절 : 정서적 단절
 분리 : 정서적 분리
 남편 :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내 :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

아버지 :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
 어머니 :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적극적 :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사회지지 : 사회지지 추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 $p < .05$, ** $p < .01$, *** $p < .001$

둘째,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거쳐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가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아 부모가 딸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게 되면, 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중심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며, 이렇게 문제중심적 대처행동을 많이 할수록 딸은 내면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로는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의 92%, 외현화 행동문제의 55%를 설명하였다.

한편 변인간 부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난 경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부갈등에 대해 정적인 직접 효과를 보

였다. 즉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또한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에는 정적 직접 효과를 보였고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에는 각각 부적 직접 효과를 보였다. 이는 부모가 딸과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아동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문제중심적 대처행동을 하며,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는 적게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동의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에 정적인 직접 효과를 보였다. 이는 아동이 스트레스에 대해 문제중심적 대처행동을 많이 할수록 내면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

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는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3) 남아집단과 여아집단간 이론적 모형의 경로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 부부갈등,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그리고 아동의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경로의 전반적인 경로는 남아집단과 여아집단간에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부분적인 경로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먼저 아동의 성에 따른 이론적 모형의 경로에서 나타난 공통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부부갈등이나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효과만 유의하였을 뿐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아동의 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행동문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아동과 동성인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집단에서는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중요하였으며, 여아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중요하였다.

둘째, 아동특성 변인인 아동의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남아집단에서는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여아집단에서는 유의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족체계론적 관점과 Bowen의 가족치료이론을 토대로 가족과정 변인인 원가족 분화 경험, 부부갈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아동특성변인인 아동의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는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 변인들간의 경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로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Kim et al., 1999; Osborne & Fincham, 1996)에 따라 아동의 성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들을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해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로 구조는 남아집단과 여아집단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는 자녀와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하며, 부모가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 할수록 아동은 내면화와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였다. 이는 부모가 윗세대인 자신의 원가족에서 분화하지 못하면, 이것이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의 안녕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내 정서적 상호작용 방식이 세대간 전수된다는 Bowen(1978)의 다세대 전수 과정 개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Bowen은 가족내 정서적 상호작용 방식이 세대간 전수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 개인은 자신이 원가족에서 경험한 분화 정도, 관계, 태도, 기대, 정서 또는 행동양식을 그대로 자신의 가족에 가져와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기능한다(박성연·도현심·정승원, 1996). 그런데 부모의 원가족 분화 역시 부모가 원가족에서 자신의 부모와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한 부모-자녀간 상호작용 방식이다. 따라서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모-자녀 상호작용 방식의 하나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세대간 전수되어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부

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가족치료 임상 현장에서는 꾸준히 보고되어 왔으나 이러한 세대간의 연계성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연구가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 그 관계를 경험적으로 밝힌 본 연구 결과는 가족치료 개입시 Bowen의 가족 체계론적 관점을 적용하는데 그 유용성을 제공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Carter와 McGoldrick은 이러한 원가족으로부터 전수된 유해한 가족 문제와 같은 수직적 문제와 가족생활주기의 전환점과 같은 수평적 스트레스가 교차될 때 한 개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정문자, 1996). 이러한 견해를 토대로 본 결과를 해석해 보면, 해결되지 않은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모-자녀 관계에 전수되어 아동의 행동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가족내 수직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내 수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자녀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서 가족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면 가족 발달에 따른 수평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이미 가족 내에는 수직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평적 스트레스가 가족에서 발생되면, 이 두가지 문제가 교차되면서 문제의 강도가 커져 가족원의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된다. 따라서 가족 발달 주기에 따라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가족 내에 세대간 전수되어 발생된 문제가 있다면, 가족의 건강을 위해 먼저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가족치료의 임상 현장에서 꾸준히 보고되어 왔던 아동의 부적응에 삼대의 정서적 관계가 얽혀 있다는 Bowen(1978)의 이론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가족치료 개입시 다세대간 전수라는 Bowen의 가족 체계론적 관점을 적용하는데 유용하리라 본다.

한편 아동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아집단은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여아집단은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즉 남아집단은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와 아들간에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이러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인해 아들은 행동문제를 보였다. 반면 여아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는 딸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이렇게 부모가 딸과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을 할수록 딸은 행동문제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성 부모에 대한 동성 자녀의 동일시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김경희(1986)는 아동이 자신과 부모가 유사하다고 생각할 때 부모를 동일시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유사성의 근원은 성으로, 자녀는 동성 부모를 동일시하고 그들의 행동양식을 모방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아동은 원가족으로부터 미분화된 동성의 부모가 보이는 미분화된 관계 양식과 역기능적인 행동 양식을 습득하게 되며, 이것이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Bartle-Haring & Sabatelli, 1998; Kisse, Murphy, Bonner, & Murley, 2000) 내면화와 외면화 행동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연구와 중재 계획에서 동성 부모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Bowen의 분화 개념을 들어 설명해 볼 수 있다. 분화 개념은 임상적 문제가 있는 가족을 치료하면서 도출된 개념이므로 분화의 영향이 개방적 의사소통과 같은 기능적 가족관계보다는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같은 역기능적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부갈등을 통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직·간접적 효과를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Fincham, 1998; Harold et al., 1997; Kitzman, 2000)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먼저 부부갈등 측정에 대한 보고자의 문제를 살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을 부모가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아동의 행동문제

에 미치는 부부갈등의 영향은 아동 자신이 부모간의 갈등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Grych & Fincham, 1990; Harold et al., 1997).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모형에 포함하여 그 결과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 대상의 가정 내 부부갈등 빈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부부갈등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부부갈등의 빈도가 매우 낮아 갈등 수준의 변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는 부부갈등 빈도가 높은 임상문제가 있는 가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면 이러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부부갈등에 정적인 직접 효과가 있었던 반면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부부갈등에 직접 효과가 없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남아집단과 여아집단 모두 동일하였다. 즉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부부간에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부갈등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서양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반면(Gilligan, 1982; Lim & Jennings, 1996),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으로(서연석, 1999; 전춘애·박성연, 1994) 서양과 우리나라간의 문화적 차이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독립시키는 서양 문화와는 달리 우리 문화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원가족과의 관계가 계속 연결된다. 이러한 관계는 출가하는 딸보다 아들에게 더 강조된다(유은희, 1991; 전춘애·박성연, 1994). 따라서 결혼한 후에도 남편은 자신의 원가족과 분리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부부간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아동의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여아집단에서만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여아가 스트레스

에 대해 문제중심적 대처행동을 할수록 내면화 행동문제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오히려 내면화 행동문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를 일으켰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스트레스 상황을 직접 변화시키려고 하는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아동이 적응문제를 적게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Compas, Orosan, & Grant, 1993; Ebata, & Moos, 1991; Griffith et al., 2000)들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 여아의 성역할에 대한 부모의 이중적 시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사회가 현대화되고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아도 남아와 같이 자기 주장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지는 한편 여전히 여아에 대하여 보수적인 성역할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딸이 부모와의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등 문제중심적 대처행동을 할 때 부모는 이러한 행동을 말대답하고 주장을 꺾지 않는 드센 여자아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에 여아는 스트레스에 대해 건강하게 대처하는 문제중심적 대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오히려 부모의 부정적 피드백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문제에 대해 위축되고 우울하며 소심해지는 내면화 행동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실제로 Griffith와 그의 동료들(2000)의 연구에 따르면 여아의 경우 수직적인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족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것이 여아의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중심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여아가 내면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문제중심적 대처행동을 하는 여아는 외형상 매우 적극적이고 건강해 보일 수 있으나 그 내면은 부모나 성인이 알지 못하는 심리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아동의 적응을 돕는 스트레스 대처 행동을 살펴보는 추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섯째, 본 모형에서 제시한 가족과정 변인들과 아동특성 변인은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보다 내면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집단에서 행동문제를 설명하는 변인들은 내면화 행동문제의 92%, 외현화 행동문제의 71%를 설명하였다. 또한 여아집단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져 내면화 행동문제의 92%, 외현화 행동문제의 5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능성의 하나는 본 연구 모형에서 Bowen의 다세대 관점과 분화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Bowen은 낮은 분화 수준에는 불안이라는 정서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정서는 세대를 통해 전수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모형의 저변에는 불안 정서가 전반적으로 내재되어 있어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보다는 불안이 포함된 내면화 행동문제를 더 잘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이민식(1999)이 밝힌 것처럼 외현화 행동문제는 가족과정 변인보다는 기질, 환경과 같은 다른 요인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외현화 행동문제의 측정 변인인 비행의 신뢰도가 .56으로 낮게 나타난 바 이러한 측정의 오차가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한 다른 변인들의 설명력을 감소시켰을 수 있다는 외현화 행동문제의 측정 문제로 인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기 앞서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본 연구는 상관관계에 기초한 횡단적인 연구이므로 본 연구에서 검증된 모형의 경로가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하는 점과 본 모형의 분석이 부모가 모두 있는 일반 가정의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별거, 이혼 가정이나 입양 아동에게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과거를 회상하여 측정하므로 연구대상자들의 이후 경험에 따라 실제보다 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Bowen이 제시한 다세대적 관점과 원가족 분화 개념을 사용하여 가족치료이론과 임상현장에

서 가설로서 제기되어 왔던 원가족에서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삼세대에 걸쳐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부모-자녀 관계에 세대간 전수되어 결국 자녀의 행동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하여 치료자가 보다 넓은 관점을 갖고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 부부갈등,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그리고 아동의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한 결과 그 경로는 아동의 성에 따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먼저 남아집단에서는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었다. 즉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는 아들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며, 부모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아들은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였다.

다음으로 여아집단에서는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으로부터 아동의 행동문제에 이르는 경로가 두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었다. 즉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는 딸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며, 부모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딸은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였다.

둘째,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모두 거쳐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었다. 즉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아 부모가 딸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

행동을 많이 하며, 이렇게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많이 할수록 딸은 내면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였다.

■ 참고문헌

- 권영옥(1997). 아동이 자각한 부부갈등과 아동행동 문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청구논문.
- 김경희(1986). 아동심리학. 서울: 박영사.
- 민하영, 유안진(1998).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6(7), 83-96.
- 민혜영(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 도현심, 정승원(공역)(1996). 부모-자녀 관계: 생태학적 접근. Luster, T. & Okagaki, L. 의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서울: 학지사.
- 박진아, 정문자(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107-119.
- 서연석(1999).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1). 문항분석을 통한 한국판 CBCL의 임상 유용도 검증.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2(1), 138-149.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7).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중앙적성연구소.
- 유은희(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은희, 전춘애(1995). 모의 자아분화수준과 모자간의 갈등이 청년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3, 137-153.
- 이민식(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춘애, 박성연(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4), 117-133.
- 정문자(역)(1996).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Carter, B., & McGoldrick, M. 의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조선일보. 1996년 4월 4일자.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artle-Haring, S., & Sabatelli, R. (1998). An intergenerational Examination of patterns of individual and family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903-911.
- Boszormenyi-Nagy, I., & Ulrich, D. (1981). Contextual family therapy. In A. S. Gurman & D. P. Kniskern (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vol.1). New York: Brunner/Nazel.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Inc.
- Bray, J. H., Willimason, D. S., & Malone, P. E. (1984). Personal Authority in the Family System Questionnaire Manual. Unpublished document.
- Buehler, C., Krishnakumar, A., Stone, G., Anthony,

- C., Pemberton, S., Gerard, J., & Barber, B. K. (1998). Interparental conflict styles and youth problem behaviors: A two sample replication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0*, 119-132.
- Chun, Y. J. (1994). Intergenerational dynamics in three-generation families: Adult's emotional ties and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Doctoral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 Compas, B. E., Orosan, P. G., & Grant, K. E. (1993). Adolescent stress and coping: Implications for psychopathology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6*, 331-349.
- Cubberly, R. D. (1988). A study of personal develop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Texas Woman's Universit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 Cummings, M., & Davies, P. T., & Campbell, S. B. (2001). Understanding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 *Brown University Child & Adolescent Behavior Letter, 17*(5), 1-4.
- Cummings, E. M., & El-Sheikh, M. (1991). Children's coping with angry environments: A process-oriented approach. In E. M. Cummings, A. Greene, & K. Karraker (E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perspective on stress and coping*. Hillsdale, NJ: Erlbaum.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Ebata, A. T., & Moos, R. H. (1991). Coping and adjustment in distressed and healthy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3-54.
- Fincham, F. D. (1998). Child development and marital relations. *Child Development, 69*(2), 543-574.
- Fincham, F. D., Grych, J. H., & Osborne, L. (1994). Does marital conflict cause child maladjustment?: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longitudinal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8-140.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oldstein, A. P. (1991). *Gangs: A psychological perspective*. Champaign, IL: Research Press.
- Griffith, M. A., Dubow, E. F., & Ippolito, M. F. (2000). Developmental and cross-situational differences in adolescents'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183-204.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Harold, G. T., Fincham, F. D., Osborne, L. N., & Conger, R. D. (1997). Mom and dad are at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333-350.
- Harrist, A. W., & Ainslie, R. C. (1998).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child interpersonal awareness as mediators -. *Journal of Family Issues, 19*(2), 140-163.
- Horne, A. M. (1993). Family-based Interventions. In A. P., Goldstein & C. R. Huff. (Eds.). *The Gang: Intervention handbook*(pp. 189-218). Champaign, IL: Research Press.
- Jekielek, S. M. (1998). Parental conflict, marital disruption and children's emotional well-being. *Social Forces, 76*(3), 905-936.
- Jeon, H. J. (1994). Conflict resolution and marital adjustment in Korean couples: Influences of attachment style, marital comparison, and motivations. Doctoral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 Kelly, J. B. (2000). Children's adjustment in conflicted marriage and divorce: a decade review of

-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8), 963-973.
- Kim, J. E., Hetherington, E. M., & Reiss, D. (1999). Associations among family relationships, antisocial peers, and adolescents' externalizing behaviors: Gender and family type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70(5), 1209-1230.
- Kissee, J. E., Murpyh, S. D., Bonner, G. L., & Murley, L. C. (2000). Effects of family origin dynamics on college freshmen. *College Student Journal*, 34(2), 172-181.
- Kitzmann, K. M. (2000).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subsequent triadic family interactions and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1), 3-13.
- Krishnakumar, A., & Buehler, C. (2000).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s: A meta-analytic review. *Family Relations*, 49(1), 25-44.
- Lim, M-G., & Jennings, G. H. (1996). Marital satisfaction of healthy differentiated and undifferentiated couples. *Family Journal*, 4(4), 308-315.
- Minuchin, S. (1974). *Family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Morita, H., Suzuki, M., & Kamoshita, S. (1990). Screening measures for detecting psychiatric disorders in Japanese second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31(4), 603-617.
- Osborne, L. N., & Fincham, F. D. (1996).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child adjustment: Does gender matter? *Merrill-Palmer Quarterly*, 42(1), 48-75.
- Rubin, K., Stewart, S., & Chen, X. (1995). Parents of aggressive and withdrawn children. In M.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L, NJ: LEA, pp.255-284.

(2003년 5월 26일 접수, 2003년 7월 23일 채택)